

논단

# 2

River & Culture



오민근 | 문화체육관광부  
門前城市 컨설턴트  
(info1009@paran.com)

##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 1

### 1. 들어가며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2년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하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이후, 청계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아스팔트 도로를 뜯어내어 그 밑에 흐르던 청계천을 정비한 2003년을 비롯하여, 요즘과 같이 하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적이 없다. 더욱이 물의 부족과 만성적 홍수,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하천을 건강한 문화생태 공간을 목표로 조성하는 4대강 사업이던, 인공방수로를 건설하여 서해로 홍수 방류 및 운하를 통한 녹색물류의 실현을 목표로 조성하는 경인운하사업이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이던 간에 모두 공

통점이 있다. 즉, 하나의 지역에 자리해오고 있던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10일에 일부개정된 '하천법(법률 제10331호)'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우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하천법 제2조(정의)의 1에서는 '하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즉, 1조와 2조에서의 규정 내용 모두 공공의 복리와 이해를 언급하고 있다.

본 글은 이에 초점을 맞추어 하천의 활성화를 위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지역발전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거창한 주제를 다루기보다,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에게 지역에서의 하천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 '다가가는' 방법은 '지역에서의 하천경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을 통해, 도시에서의 하천을 다루는 것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고, 지역의 개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하는 여러 수단 중에서, 하천경관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그 하나의 수단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2. 경관(景觀)의 개념

일반적으로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경관'을 떠올리게 되며 이는 보이는 '景'과 보는 사람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에서 '보는(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도로써, 나무 한 그루, 바위 한 점 등과 같은 여러景物(景物)이 모여서 어우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경관'은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 가능하므로, 인간의 '시야'에 들어오는 세상의 생김새이기도 하다.

경관은 원초적으로는 사람의 육안으로 본 것을 가리키나, 이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사람이 태생적 혹은 후천적으로 갖게 된 가치관 등에 따라 영

향을 받기 때문이며, 눈으로 받아들인 시각정보를 머리가 해석·처리하는데 그 과정은 단순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되는 기계적 처리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관은 '눈에 보이는 경관'일 뿐만 아니라 '해석된 경관', '평가된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경관'은 지표면의 일부로서 산, 들, 습지, 하천 등과 같이 생태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의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천경관은 단순한 자연환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반영된 역사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하천은 치수 및 이수 측면에서의 하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이 존재하게 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경성용산사가지도(1908년에 나타난 4대문 안의 물길(물자 소장))

위 지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4대문 안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물길이 있었다. 현재는 아스팔트로 덮여 그 흔적을 알 수 없는 경북궁 양쪽의 하천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이 당시의 경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청계천도 2003년 청계고

1) 景觀이라는 말은 보이는 景과 보는 觀이라는 낱말을 합한 것이며, 景이라는 한자는 서울(京) 하늘에 해(日)가 떠 있는 상황을 그린 글자이다. 이처럼 맑은 하늘에 해가 떠 있으면 서울 도심 안의 모든 건조물들이 빛나고, 특히 화려한 궁궐(대개 남행이 가장 빛나고 반짝인다)(황기원, 경관의 해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수업자료), 또한, 경관의 개념에 관해서는 한국조경학회지에 실린 황기원의 논문을 참조할 것. 『景觀의 多義性에 관한 考察』, Vol.17, No.1, pp.55-68(1989) / 『景과 관련 道義의 概念에 관한 考察』, Vol.22, No.4, pp.23-36,

가도로 해체와 청계천로 아스팔트를 걷어내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그 자취를 드러내었음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관련 분야에서는 '경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 경관공학에서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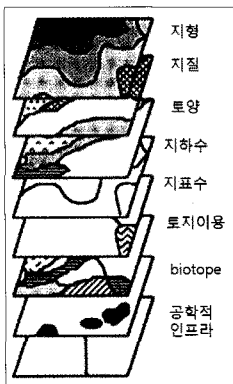
토목공학 및 경관공학<sup>2)</sup>의 입장에서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경관의 본질은 '시점(경관주체)과 대상(경관대상)'으로 성립하는 심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어느 시점에서 바라본 환경의 모습이며, 문화적 전통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것 - 中村良夫
- 어느 대상(경관대상)을 사람(경관주체)이 보는 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시상(視象) 혹은 심적 현상 - 篠原修
- 사람들이 보고 있는 주위의 환경 - 수변경관연구회 분과회(일본)
- 사람들이 풍경을 바라볼 때 생기는 심리적 현상 - 島谷幸宏

특히, 시노하라(동경대학교수)는 토목분야에서 경관계획의 본질에 관해 '경관계획이 다루는 대상이란, 물적 현상 자체만이 아니라, 시각을 매개로 하는 사람과 경관대상과의 관계인 것이다'라고 '신체계토목공학 59 - 토목경관계획'에서 서술하고 있다.

▶ 경관생태학에서의 정의

경관생태학에서는 '경관'의 정의를 다양한 자연환경 및 인



〈그림 2〉 중첩에 의한 경관단위

간활동,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시간축을 포함한 총체로서 경관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경관공학에서의 경관의 정의와 비교해보면, '시점(장)'과 같은 개념은 없고, 소위 상공에서 항공사진으로 파악하여 수직 구조로서의 균질한 장을 단면으로 나타낸 후, 그 상호작용 및 시

간적으로 변화하면서 모자이크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대상'의 전체를 경관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지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경관의 정의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 '토지인자의 상호작용, 혹은 천이의 시간적 경과, 인간의 관여가 복합하는 등이 종합된 결과로서의 상(像)', '일정 기능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널리 동질한 3차원적 공간단위' - Carl Troll(독일)
- 환경계적인 가치관에 기초하는 인간주체적인 환경인식의 상(像) - 武内和彦

▶ 하천공학에서 경관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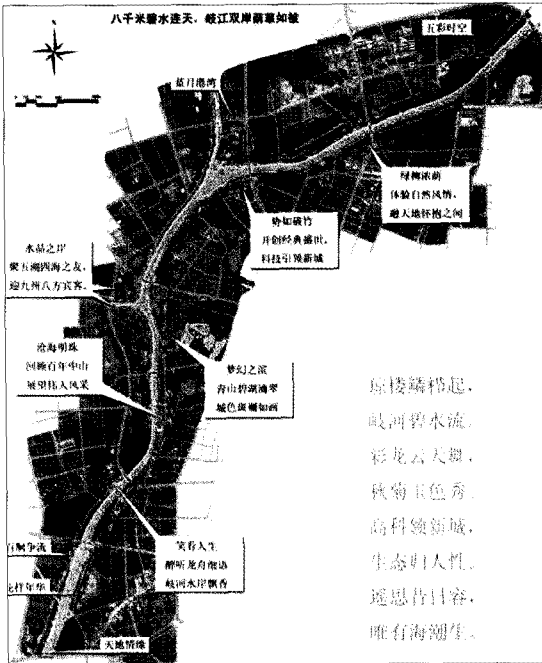
- 물의 흐름, 모래, 지형변화, 식생의 상호작용계로서의 하상(河相)에 생식환경, 인간활동에 관련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 - 辻本哲郎

### 3. 하천경관의 공간적 범위

이러한 하천경관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 양측의 일정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하천의 특정 구간을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로의 일정 범위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도시 내의 하천이든 농산어촌 지역의 하천이든 상관없이,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 역사 및 문화, 관광이라는 부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하천경관디자인의 핵이 되는 하천과, 그 주변의 완충지역으로서 일정 폭에 존재하는 그 생태와 자연, 일반주거지, 공업지, 경작지 등의 토지이용과 역사 및 문화자원, 관광자원이 존재하는 지역, 그리고 그 바깥의 지역이라는 3단계의 위계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1단계가 대개의 계획과 설계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된다. 〈그림 3〉은 중국 中山市의 중심시가지를 흐르는 石岐江

<sup>2)</sup>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목공학 및 경관공학에서 하천에 대한 경관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편이다.

의 경관계획이다.



〈그림 3〉 중국中山市의 중심 시가지를 흐르는石岐강의경관계획  
출처 : <http://www.usa-delaware.us/xxphoto/p-05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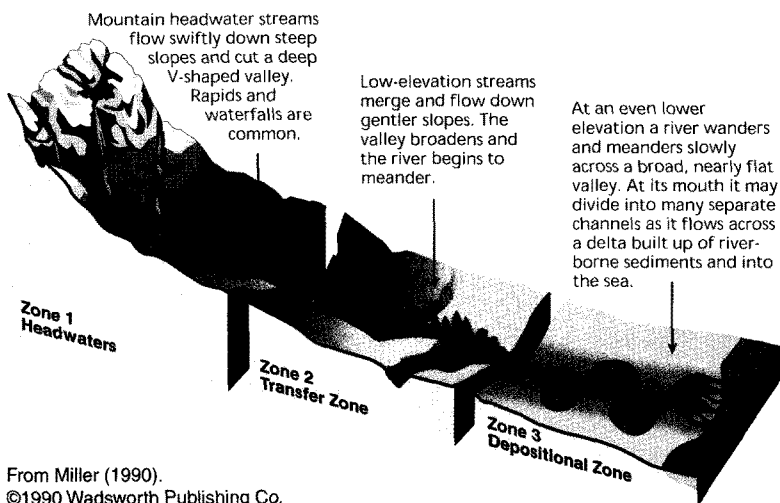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하천은 거시적으로 볼 때 〈그림 4〉와 같은 개념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하천경관의 계획은 〈그림 4〉와 같이 어느 구간의 하천인지에 따라 그 구성요소와 형태에 의한 경관의 특성이 달리 나타나게 되므로 경관계획의 범위와 내

용, 수법 등 또한 다르게 된다.

#### 4. 지역에서의 하천이 갖는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이 진부하다고 여길 정도로 이 표현은 많이 듣고 보아왔다. 세계의 모든 주요 도시가 그렇듯이, 바다와 하천을 끼고 자리를 잡고 발달해 왔다. 특히, 서울의 한강, 런던의 템즈강과 같이 주요 도시에는 반드시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인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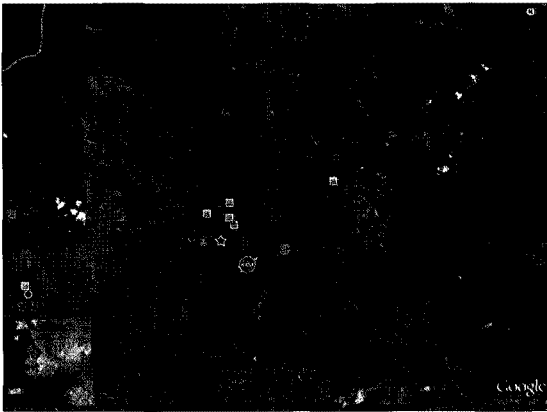
하천은 지역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가치자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하천의 오염문제 발생과 치수(治水)기능이 우선 시된 하천관리로, 하천이 갖는 풍부한 특성(자연적, 정서적 등)과 그에 대한 가치를 대개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천은 도시와 지역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주요 도시의 얼굴이자 문화와 풍토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기능적으로도 물류의 수송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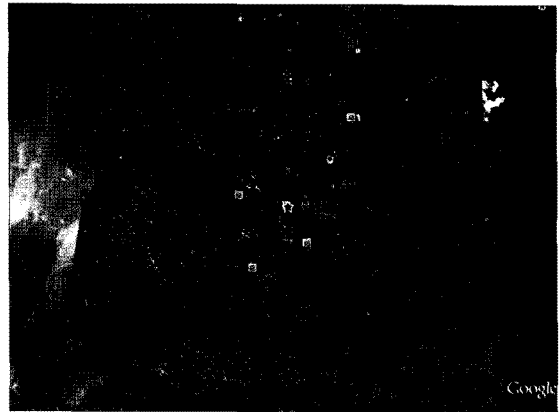
From Miller (1990).  
©1990 Wadsworth Publishing Co.

Fig. 1.27 - Three longitudinal profile zones.  
In Stream Corridor Restoration: Principles, Processes, and Practices, 1996.  
Interagency Stream Restoration Working Group (15 Federal Agencies of the US).

〈그림 4〉 하천의 종적 구역 구분 개념도 (하천경관의 개념도로 적당한 그림이 없어, 하천복원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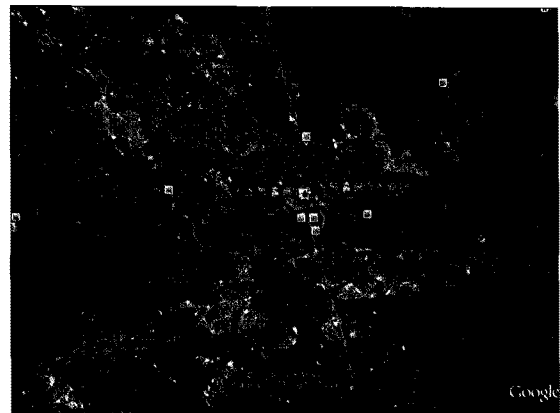
〈그림 5〉 서울과 한강(구글 인공위성사진)



〈그림 6〉 평양지역(구글 인공위성사진)



〈그림 7〉 런던과 템즈강(구글 인공위성사진)



〈그림 8〉 스톡홀름과 Mälaren 호(구글 인공위성사진) '스톡홀름은 많은 운하와 호수가 존재'

## 5. 하천의 다양한 역할

이렇게 도시와 농산어촌에 존재하는 하천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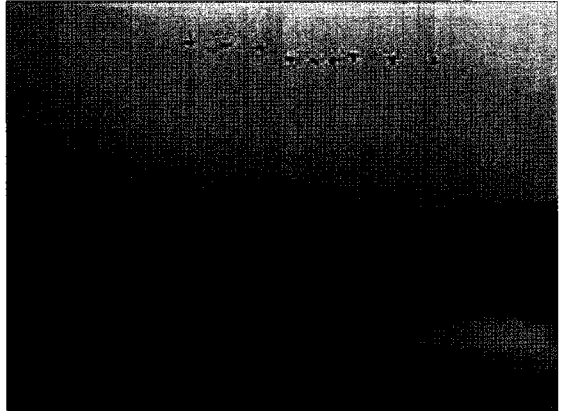
- 첫째, 하천을 축으로 한 도시방재기능
- 둘째, 하천정비와 연계한 하천변 시가지의 개선
- 셋째, 긴급시 방화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
- 넷째, 도시내 수변을 활용한 공간
- 다섯째, 도시공간의 골격을 형성하는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Blue & Green Network)
- 여섯째, 도시의 경관 및 풍경의 골격 형성
- 일곱째, 도시내 수변 여가 공간
- 여덟째, 도시의 변화한 분위기 연출 공간
- 아홉째, 도시의 교통기능공간

특히, '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이 있는 것은 첫째, 셋째, 아홉째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즉, 나머지 6가지를 엮는 개념이 '경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천'을 '경관'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곧 도시방재 및 긴급시 방화수로의 이용, 도시교통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천의 역할은 그 보전과 활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역에서의 관광활성화에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가령, 일본 환경성에서는 '일본 소리 풍경 100선', '향기풍경 100선'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하천의 소리와 향기와 함께 지역에서의 문화와 생활을 일체화하여 보전 및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9〉 通潤橋의 방수(熊本県 矢部町)  
\*출처 : <http://img.alabout.co.jp/gm/article/65765/tsuijunkyou1.jpg>



〈그림 10〉 福島 개펄의 기러기(新潟県 豊栄市)  
\*출처 : <http://www.weblio.jp/img/dict/nhfh/s/air/life/oto/KT/42P.gif>

### 일본 소리 풍경 100선 목적 및 공모 요건

#### 목적

- 일상생활 속에서 귀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소리에 대한 재발견 촉진
- 양호한 소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에 근거한 대처의 지원
-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려고 하는 대처의 의의 및 가능성이 있을 것

#### 공모요건

- 특정 지역에 입각한 소리일 것
-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하고,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좋은 소리일 것

### 향기 풍경 100선 선정 관점

- 많은 일반 주민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조건일 것.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풍경일 것
- 향기 풍경이 지역에서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생활 또는 생산활동 환경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승될 것
- 향기 풍경에 접하는 것에 의해,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휴식과 편안함을 계속 줄 수 있을 것
- 향기 풍경의 창출 및 유지, 보전에 대해 지역적으로 대처하는 열의가 보일 것
- 향기풍경의 보전이 지역환경 개선 또는 보전모델로써 기여할 것



〈그림 11〉 일본 교토부 伏見區 양조장 \*출처 : <http://www.env.go.jp>



〈그림 12〉 일본 고치현 四方+하천 침하교(沈下橋)를 지나는 비람  
\*출처 : <http://www.env.go.jp>

- 향기풍경이 사람이 갖는 5감을 불러오는 환경 만들기에 공헌할 것
- 향기풍경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보존하는 가치가 높은 지역일 것

## 6. 하천경관의 특징

하천경관은 도시와 산간부 등 다양한 지역에 흐르고 있으며, 상류와 하류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경관은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경관일 뿐만 아니라, 해당 하천 주변에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문화로 인해 시대를 따라 다양한 풍경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하천의 역할에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더하여 하천경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자연의 힘이 계속되는 경관
- 둘째, 고유의 생태계를 갖는 경관
- 셋째, 표정이 풍부한 물이 흐르는 경관
- 넷째, 일정 폭과 연속성을 느낄 수 있는 경관
- 다섯째, 시간에 의해 다양해지는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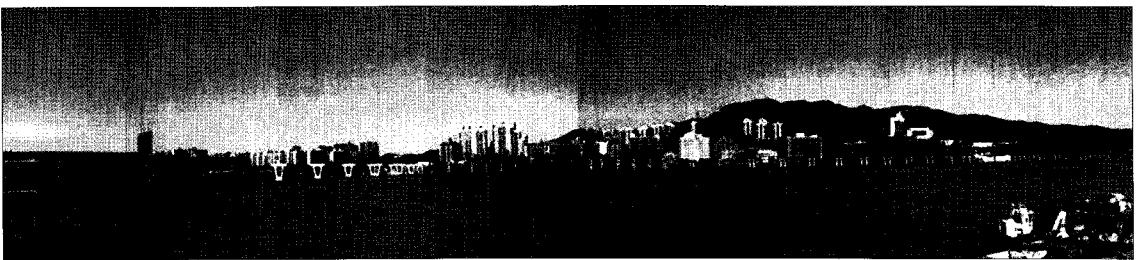
여섯째, 인간의 행위가 반영된 경관  
 일곱째, 하천유역의 문화가 나타나는 경관  
 여덟째, 물과의 조화와 변화함이 있는 경관  
 따라서 이러한 하천의 역할과 하천경관의 특징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과 계획, 설계와 시공은 지역에서 고유한 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기본적 기능인 치수 및 이수는 물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7. 하천경관 디자인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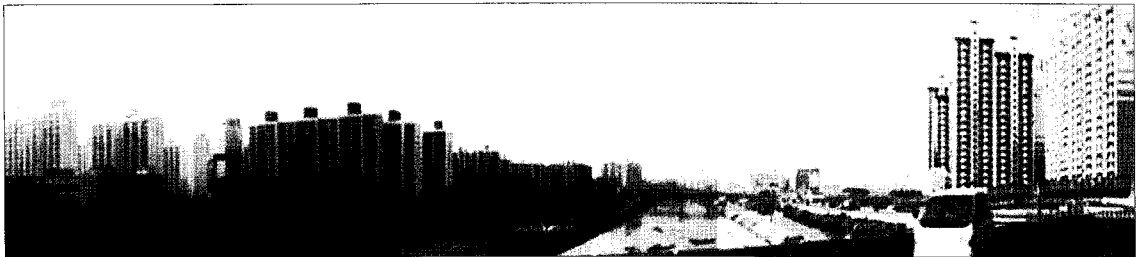
하천경관의 관리를 위한 수법에는 법제도적 수법, 정책적 수법, 디자인적 수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2000년부터 참여했던 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 서울의 한강변과 안양천변 사진을 보면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 하천의 경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반면, 일본 동경의 신주쿠지역을 흐르는 妙正寺川에 대한 경관가이드플랜을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풍경 형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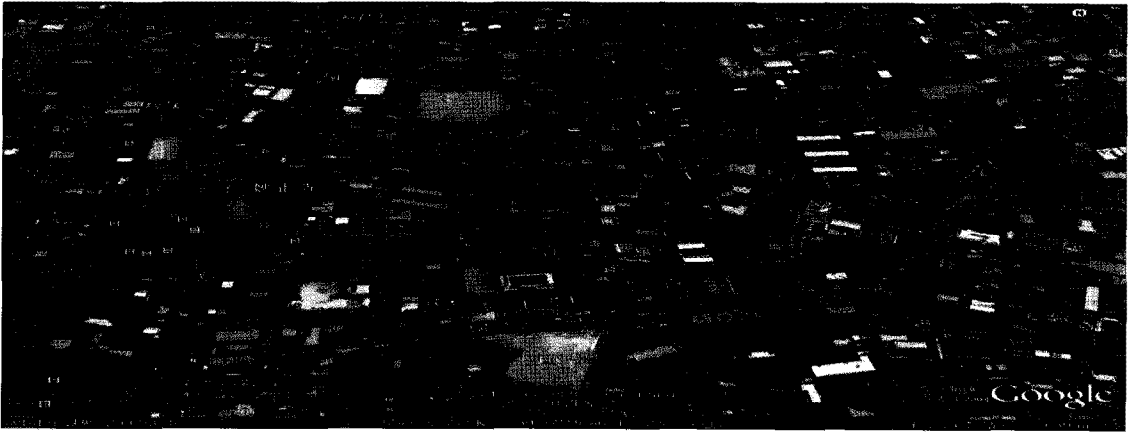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강의 교량 사이에 전망대 및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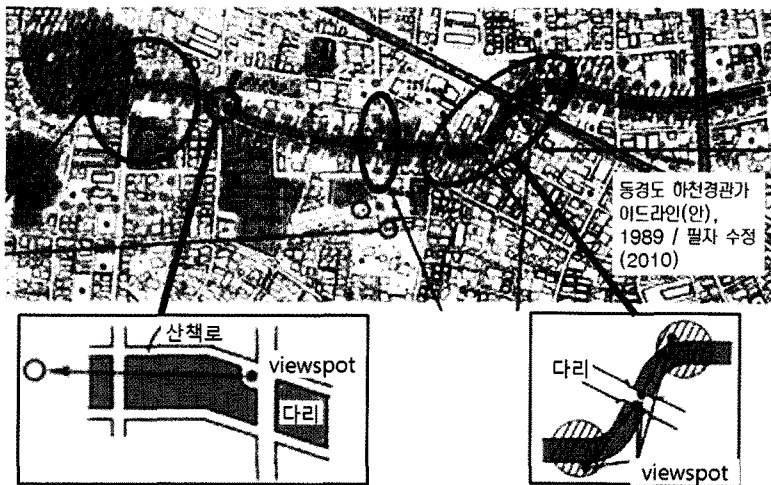
〈그림 13〉 한강 북측의 풍경(광진구 지역)



〈그림 14〉 안양천의 풍경(광명시 지역)



〈그림 15〉 실제 妙正寺川 일대(출처: Google Earth)



〈그림 16〉 妙正寺川 경관가이드플랜

폐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하천을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강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방문객에게 기본적인 체험만을 제공하고 있다.

### 8. 하천경관의 보전 및 활용 기본 방향

우선, 하천경관 보전의 필요성이란 하천변에 산재하는 유무형의 역사적 맥락을 살리고, 하천을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골격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를 재생하고 강화하여 도시의 이미지 형성 및 쾌적한 공간을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하천경관 활용의 필요성은 하천의 보전에 의해 확보

된 하천경관과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접근을 유도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관광루트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하천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에 대한 경관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상생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9. 나오며

지금까지 '하천과 경관'을 중심으로 총론 차원에서 거칠게나마 정리해보았다. 물론, 법제도적 측면을 비롯하여 구체적



인 하천경관계획에 관한 관련 이론이나 기법들, 그리고 실제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에 의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다루는 것은 차차 다루도록 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증대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형성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과 토지이용, 수자원의 오염 등에 따른 지역환경의 악화는 물론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고갈 문제에 대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기본적으로 하천의 수질, 유역관리, 하천생태, 습지 및 수서생태 등을 비롯하여 사회학 및 역사학, 지리학,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설계 및 환경디자인, 조경, 댐과 교량 등의 토목, 도로, 건축 분야와 함께,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환경교육 및 경관교육, 문화 및 예술학, NPO, 향토 및 풍습 분야와의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작은 하천이라도 이러한 분야의 협력으로 지역의 개성을 살린 하천경관의 계획 및 설계를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사례를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